진도, 군정발전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인구늘리기 · 고향사랑기부금 · 농수산발전 등 5개 분야

진도군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023년 군정발전 제안을 오는 30일 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생활 인구 유입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 군정발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늘리기 ▲고향사랑기부금 ▲농수산발전방안 ▲복지편의증진 ▲생활불편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한다.

신청은 진도 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고,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채택된 제안은 심사를 통해 최대 상금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을 수상결과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군정발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어르신 행복 바우처 카드' 도입

읍 · 면서 65세 이상 카드 신청받아

영암군이 다음 달인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어르신 행복 바우처 카드'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종이 형태로 나눠주던 어르신 목욕, 이 · 미용업소 이용권을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바꾸고 카드를 배부받을 어르신을 모집한다.

영암군은 분실 위험, 분실 시 구제 방안 부재, 부정사용 및 부당 청구, 행정력 낭비 등을 막고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방식을 도입했다.

영암군민 만 65세 이상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가 대리 신청해도 접수되지만, 시설입소자나 중복수혜자 등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바우처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영암군 목욕장, 이 · 미용업소에서 매년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를 분실하면 거주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해 준다.

재발급 카드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 분실에 따른 손실분도 반영해 준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 변천사 · 행정 박물 30일까지 전시

'기록의 날' 기념… 문화예술의전당 · 군립도서관서

완도군은 '기록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과 군립도서관에 완도 변천사(사진 기록)와 행정 박물을 6월 30일까지 전시한다.

'기록의 날'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 확산을 취지로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정한 세계 기록의 날(6월 9일)을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완도 변천사(사진 기록)는 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청해진 주춧돌이 해양치유산업 머릿돌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사진 38점)을 만나볼 수 있다.

행정 박물은 행정의 변천사를 나타내는 증거적 자료로 역사적 · 문화적 · 예술적 · 상징적 가치를 지닌 형상 기록물이다.

이에 행정 역사의 변천과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 표창, 상장, 수치,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 방명록 등 행정 박물 40여 점을 군립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하여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마늘 kg당 3100원' 최저 수매가에 뿔난 농심

마늘 1kg당 농협 판매가는 8000원 · 수매가는 3100원

신안 농민들 "생산비도 못 건져…농협은 단가 재조정하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신안군지회(지회장 문장춘)는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신안군 암태면 소재 신안농협 앞에서 농민 70여 명이 모여 '계약재배 단가를 재조정하라'며 마늘생산자대회를 가졌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과 신안농협이 마늘 계약재배 수매가격을 1kg당 3200원과 31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남도종(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마늘 품종으로 주로 양념용으로 쓰임) 마늘을 수매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싼 가격이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김창수 회장은 "현재 부산 공판장 등에서 거래되는 남도종 마늘 경매가가 1kg당 6000~7000원 선이다. 그런데 시장가격을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것인지 신안농협에선 1kg당 3100원으로 결정했다"며 "농협이 최소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을 수매단가로 결정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명경옥 전남지부장은 "이제부터 농민이 농협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직접 목소리를 높여 행동하려 한다"라며 생산자대회에 힘을 실었다.

생산자대회에 참석한 김 모 씨(압해, 53세)는 "올해 신안지역 농협의 접마늘(1접은 100개) 수매가격은 1만8000원선이었다. 생산비에도 못 미쳐 1톤 트럭에 마늘을 싣고 인근 고흥으로 가서 경매로 1접에 2만50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안군지회 김성기 사무국장은 "작년 남해산 마늘 1kg당 8000원에 농협에서 판매했다. 올해 창녕과 남해의 수매가는 6000~7000원선으로 예상된다. 신안의 마늘이 다른 지역과 가격이 차별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신안농협은 이제라도 수매단가 결정을 철회하고 수매단가를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강진 영랑로, 확 바뀐다… '美프로젝트' 첫 대상지

야간조명 · 화단 · 조형물 · 간이쉼터 조성… 지역 명소 변신

강진군은 '강진읍 美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랑로 일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가을까지 강진군은 목재 화분이 있는 영랑로에 야간 조명을 포함한 성벽 화단을 배치하고, 터미널 부근 조형물을 리모델링해 간이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읍 美프로젝트'는 강진읍 시가지 일대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을 만드는 경관 개선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랑로는 강진읍의 중심지로 탐진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돼 도심의 중앙 축 역할을 하며 유동 인구가 많다.

강진버스터미널이 자리해 있어 관광객에게 강진의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공간이다.

영랑로 일대에서는 ▲터미널 입구 옆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 ▲메가커피 앞 교통섬 내 간이쉼터 조성 ▲영랑로 보도 옆 배치된 기존 화분 교체 후 성벽 화단 설치 ▲택시 승강장 옆 성벽 화단 설치 등 총 4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강진군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화분이 위치한 구간만 대상으로 하고, 터미널 입구 부근에 조성될 조형물 및 성벽 화단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와 면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남도 계약 심사 등 절차 이행 후 올 가을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해남, 간척지 율무 재배로 벼 대체작목 육성

기계이앙 연시회 열려… 간척지 율무재배 최초 성공 관심 집중

해남군이 밭작목인 율무의 간척지 재배를 위한 시범포를 운영한다.

군은 마산면 간척지 일원에 3ha규모의 율무재배 시범포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2023년 간척지 율무 육묘 기계이앙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포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간척지 율무 재배에 성공한 산막영농조합법인 권길환 대표와 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업하여 재배기술을 정립,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운영된다.

권길환 대표는 침수와 염분 피해 등으로 벼 외에 작물 재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간척지에서 1주일에 3~4번 물 걸러대기를 통해 염도를 낮추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율무 재배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율무 모를 벼처럼 육묘해 이식기로 옮겨심은 결과 뿌리 활착이 좋고 생육이 빨라 밭재배의 80% 수준까지 수확량이 늘어난 것도 확인하였다. 산막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올해 16ha 면적까지 율무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율무 모의 기계이앙을 시연하고, 간척지 재배시 재배기술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져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남=김동주 기자

목포 전통시장, 22~25일 국내산 수산물 할인 행사

목포시 전통시장이 국내산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목포시에서는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이 선정되어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액은 구매금액 구간별로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은 1만원이 각각 환급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9개 전통시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전남에서는 4개시장(목포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 여수 수산시장)이 선정됐다.

/목포=김근호 기자